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세 곤



주말에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 1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깜짝 놀랐다. 외국인을 비롯하여 관광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모신 경기전도 달려졌다. 세종, 정조 등의 어진이 작년 11월에 개관한 어진 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이다.

강암서예관에서 전주의 명필 송성용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부러움을 느꼈다. 전주는 7회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열고 있고,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촬영소인 전주향교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봇글씨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고택(古宅) 학인당도 구경했다. 임방울, 박노주, 김소희 등 명창이 판소리 공연을 하였고 백범 김구 선생이 묵었다는 학인당은 한옥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은 속박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체험관광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관광을 하면서 쓰는 돈이 한나절 관광의 3~4배 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이두업 선생이 교장인 전주학교는 한옥마을 체험관광의 대명사다. 서울에서

관광객을 모집하여 법고창신 전주를 강의하고 막걸리 마시고 쑥대머리도 들려주면서 전주의 맛과 멋 그리고 흥을 느끼도록 한다.

태조로와 은행로 교차점에는 일광백 감독의 100 그리고 첫 번째 영화 '달빛' 길에

광주 관광, 신발 끈을 다시 매자

'올리기' 흥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주시청 한스타일관광과 공무원이 박종훈과 다큐멘터리 감독 강수연의 한지에 대한 열정을 담은 이 영화는 필자도 보았는데 우리 옛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 인상적이었다.

오늘대로 가는 길에 기념품 가게에 들렸다. 기념품점에는 꽤나 사람들이 많았다. 필자도 한지 암말을 몇 걸레 사고 한강 주도 한잔 마시었다. 길가에 있는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되어 있어 한옥마을이 세계화로 성큼 다가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목대는 환전부에서 외구를 물리치고 개경으로 가던

이상계가 종친들을 모아 잔치를 벌인 곳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한옥마을이 한눈에 잘 보였다.

'흔불'의 작가 최명희 문학관과 전동성 당도 방문했다. 전동성당이 순교자들의 처형지임을 알고 나니 숙연해 진다. 그리고 10여 분 정도 걸어서 전주 객사를 찾았다.

저녁식사로 전주비빔밥과 모주를 먹었다. 밥상에 깔린 종이에는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라는 전주 흥보 슬로건이 적혀 있었다. 전주는 한옥, 한식, 한자, 한소리, 한춤, 한방 등 한(韓)을 바탕으로 세

과도 걸들여서. 그러다가 생각을 광주의 관광으로 옮겨 본다. 예로부터 광주는 예향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꿈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광주의 관광은 무언가 2%가 부족한 느낌이다. 궁동 예술의 거리는 10년 전보다 더 쇠락한 것 같고, 아시아문화전당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

서울에서 아시는 분이 왔을 때 광주의 어리를 구경시켜야 할지 망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소쇄원, 식영정 등 담양의 가사문화유적지로 가게 되지만 광주의 대표음식도 찾기가 힘들어서 고민한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라고 불거리, 먹을거리, 이야기거리가 왜 없겠는가 마는 광주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얼른 생각 안 난다.

며칠 전에 광주관광협회는 광주문화관광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사는 광주의 관광자원이 인지도가 낮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포럼을 개최하여 관광종사자부터 변화하는 말도 했다. 참고로적인 일이다. 광주관광, 이제 신발 끈을 다시 맬 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정상문



최근 정부와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그 제재나 책임의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듯 합니다.

하지만 필자가 여러 건의 형사재판에 임하다 보면 법정형의 상·하한이 너무 높아 오히려 형평성에 반하고, 정의 관념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경향은 가급적 재판장이나 행정 공무원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향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도상해죄 외에도 미야 관련 범죄나 성범죄, 경제사범, 뇌물죄 등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서 재판장이 범죄의 태양이나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아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범죄인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법정형을 보더라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기 고

송우종



요즘 들어, 우리 전통 막걸리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고무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각 단위별로 대를 이어온 영세 주조장들이 나름의 제조방식과 재료를 이용하여 특색있는 막걸리를 제조·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향과 특색을 지닌 수많은 전통주(막걸리)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멀리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는 사정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막걸리의 저번 확대와 경영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영세 업자들도 한 끗 했으

해서 인지도를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해양조가 강력한 유통망을 무기 삼아 복분자와 와인 시장에 뛰어 들면서 영세업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전남의 막걸리 시장도 현 추세라면, 보해양조에게 모든 시장을 빼앗기고 영세 주조장들은 대를 이어 전통주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땅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전통주 '사케'는 '니혼주'라고 불리는데 전국적으로 2000여개가 넘는 주조장에서 수천종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

법정형 상·하한에 대한 검토 있어야

경향에 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강도상해죄'를 생각해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로 범죄자가 골목길에 서 학생에게 겁을 준 뒤 주머니에 있는 1만원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다리나 얼굴에 약간의 타박상만 입혀도 그 범죄는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3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상해죄의 행위의 형태나 모양은 상당히 다양하고 특히 상해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남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경찰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 법정형의 최하한을 7년으로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인의 동기나 원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도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살인죄'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범죄가 인류에게 존재하는지 물고 싶습니다. '살인죄'도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다른 범죄의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도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정의관념에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범죄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교묘해

는 것은 대하여 처벌의 정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방향은 법정형의 상한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면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범죄들의 법정형의 하한을 전제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법원 변호사〉

보해, 전통 막걸리까지 고사 시키려는가

리라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영세 업자들의 노력으로 막걸리가 국민의 사랑을 받자 대기업들이 유통망을 무기로 막걸리 시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진로 소주'나 '롯데음료', '오리온' 같은 대기업은 해외수출만 하여 영세업자들의 시장을 잡으려고 않았습니다. 오히려 OEM 방식으로 수출하여 대기업과 중소영세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을 대표하는 '보해양조'는 직접 막걸리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소주와 함께 막걸리를 소매점까지 보급하며 시장을 잡으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며 평생을 살아 갈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식문화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여 전분 복분자 술 같은 일이 우리 고장 막걸리 시장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안길입니다.

계에 수출하며 일본의 전통주로써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은 전통주 제조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자본주의 시장원리는 차지하고 라도 세세히 유통구조와 상도덕을 살펴보시고, 영세하나 지역의 특산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 만들어온 우리 각양의 전통주가 맥이 끈기지 않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3대째 막걸리를 만들어오고 있고 제 아들도 신품영양학과에 진학하여 4대를 이어 전통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나름대로 느끼며 평생을 살아 갈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식문화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여 전분 복분자 술 같은 일이 우리 고장 막걸리 시장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안길입니다.

〈해남 옥천주조장 대표〉

택시회사, 교통사고 비용 기사에 전가 말아야

택시 경력이 10년 넘는 친구가 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속이 편한 일이라면 왜 한숨이 나오겠느냐"며 손을 저었다.

택시기사들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회사 층에서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 수가를 올리길 것을 염려해 개인적인 합의를 종용하기 때

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권고 사직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다.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의무적으로 1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규정상으로는 사고처리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고유가에 힘들어하고 회사 층의 횟포에 한번 더 우는 운전기사들의 애환이다.

▲오수영·광주 북구 운암동

까지 인내하며 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노사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노조가 워크아웃 상황을 인정하고,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사가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것 역시 상생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노사 양측이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견해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갈등을 재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사 간의 견해차가 회사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다.

이제 금호타이어는 내부외환을 이기고 워크아웃 졸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잊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의 금호가 있기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온 지역과 지역민을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고삐 풀린 물가 안정 의지 있나 없나

물가 상승의 끝이 안 보인다. 석 달째 정부의 목표치(3%)를 훨씬 웃도는 5%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에 대해 단발성의 대증요법에만 치우쳤다. 물가에 이상징후가 나타난 지난해 9월 배추 대란 때 해당 품목의 가격 통제라는 '두더지 잡기'식 대응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같은 국지적 대응방식은 요즘처럼 연쇄상승의 국면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전혀 없다.

실제로 식탁물을 비롯한 유가, 전·월세 등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의 장기화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줘 양극화 심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는다. 더 이상 물가상승을 방지할 수 없는 이유다.

현 정부가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짱이 없다. 지난 1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한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정부의 물가 안정의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에 대해 단발성의 대증요법에만 치우쳤다. 물가에 이상징후가 나타난 지난해 9월 배추 대란 때 해당 품목의 가격 통제라는 '두더지 잡기'식 대응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같은 국지적 대응방식은 요즘처럼 연쇄상승의 국면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전혀 없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저금리, 고환율의 환상에서 벗어나 대기업·건설 중심과 수출 증대와 같은 성장 위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생계난에 허덕이는 서민 가계를 보살피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동반성장이 체결되거나 외면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경기침체와 함께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는 사실상 장기적인 문제로 이해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1일 영국 일간 인디언트론트는 "빚더미 물가 상승은 포르투갈, 쿠바, 호남부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경제 위기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일간지 미리는 영국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예상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公約)들이 출범이 되면서 경제 위기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예상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동양기원설도 있다.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7일 동안 청문(聽聞)하거나 좌선을 통해 수행을 쌓았다는 신자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동양기원설도 있다.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7